

[ 바둑 ]

‘초읽기 승부사’ 조치훈 부활 투혼



‘불멸의 승부사’ 조치훈(51·사진) 9단이 부활 투혼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 최다인 통산 69회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조 9단은 최근 NHK배 결승에 오른데 이어 일본 10단전에서 선취점을 올리면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조 9단은 지난 11일 열린 NHK배

NHK배 4강전서 요다 9단 꺾고 3년만에 결승 올라 십단전서도 야마시타에 선승, 타이틀 방어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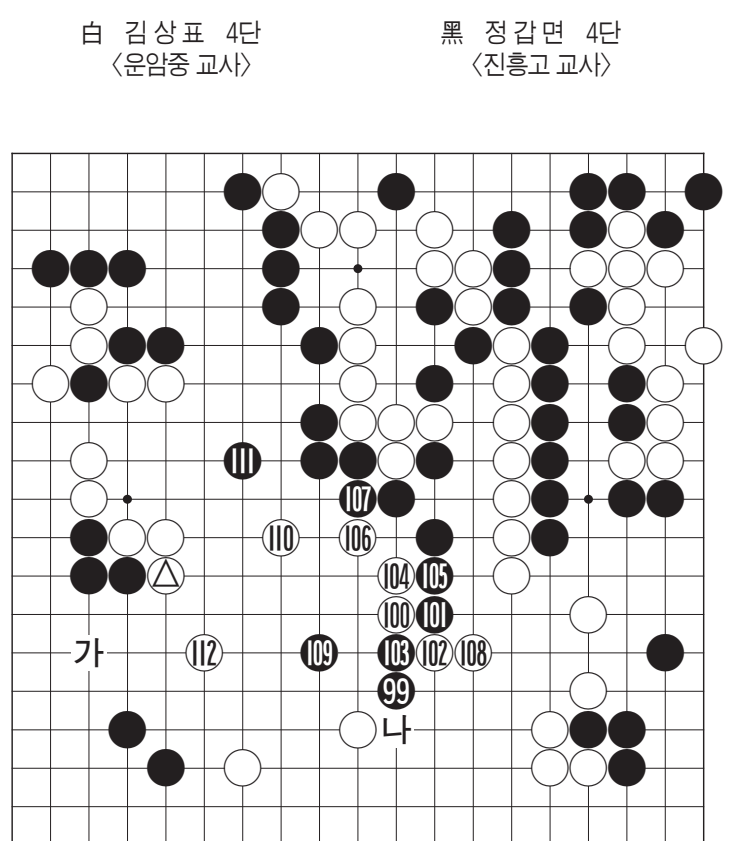
결승을 통해 노장의 뒷심을 보여줬다. 이 대회 준결승에서 요다 노리모토 9단을 꺾고 3년만에 결승에 오른 것이다. 조 9단은 이 대회 16강전에서 야마시타 게이코 9단을, 8강에서는 하네나오키 9단에게 항서를 받아내는 등 전성기를 연상하는 활약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조선전 9단을 꺾고 결승에 오

른 유키 사토시 9단과 오는 18일 결승전을 갖는다. 이 같은 상승세라면 그가 또 하나의 타이틀을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둑계의 중론이다. 조 9단이 속기전인 NHK배에 유달리 강하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통산 우승 3회(30, 39, 43기) 준우승 3회(27, 48, 51기)의 성적

을 올리고 있다. NHK배 우승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조 9단은 십단전에서도 선취점을 따내 NHK배와 함께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지난 2005년 십단전 타이틀을 따낸 그는 이번 45기 대회에서 도전자 야마시타 게이코 기승을 여유있게 따돌리며 타이틀 방어에 청신호를 밝혔다. 조 9단은 제44기 대회에서 야마시타 9단을 3승1패로 따돌린 바 있는 등 강점을 보이고 있어 3년째 타이틀을 수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마시타 9단은 최근 고바야시사

투투 9단에게 4 : 0, 완승을 거두며 기성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만 도전1국 패배로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도전자 결정전에서 요다 9단을 꺾고 십단전 도전권을 획득한 야마시타 9단은 현재 기성,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산 타이틀 획득 기록은 12회. 1국에서 자존심을 구긴 야마시타 9단의 반격과 ‘노병’ 조치훈 9단의 관록이 충돌하게 될 2국은 오는 3월 29일 아이치현 가마고리 시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쳐버린 반발의 찬스 7보(99~112)



백 김상표 4단 (운암중 교사) 흑 정관범 4단 (진흥고 교사) 가 나

백 10로 꼬부러왔기 때문에 당장 '가'의 침입이 눈에 들어 온다. 그러나 이렇게 지키고 있기에는 형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정관범 4단의 고민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흑 99로 짚아가는 승부수를 날려졌다. 백은 '가'로 받아줘도 되는 약간 여유가 있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표 4단은 응수가 없다. 즉각 100으로 갈라쳐 '여기에서 승부를 내자'고 덩벼든다. 이것은 흑에게 위기가기도 하지

‘셴들’ 이세돌, 맥심커피배 우승



맥심커피배 우승자인 이세돌 9단(오른쪽)과 준우승을 차지한 박정상 9단이 지난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기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효진 복귀, 국내 반상 돌풍 부나

韓·中 첫 프로기사 커플, 2년만에 돌아와 왕중왕전 주작부 결승 진출, 옛 기량 과시

지난 2005년 중국의 위예량 4단과 결혼해 한중 최초의 프로기사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권효진 5단(사진)이 2년 중국생활을 접고 최근 국내 무대에 복귀했다. 권효진이 컴백 무대에 제4회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서 여자부인 주작부 결승까지 진출해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한 가운데 남편인 위예 4단은 지난 8일 한국기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4월1일부터 객원기사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들 커플은 결혼 후 중국 베이징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바둑도장을 운영해 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때때로 바둑을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럴 때면 '나도 어쩔 수 없는 프로구나'하는 마음에 웃음이 났지요. 이제 마음껏 바둑을 둘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권효진 5단은 알려진 대로 국내 프로기사 배출의 산실인 '권감용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감용 7단의 장녀. 권5단이 귀국을 결정하게 된 데에는 부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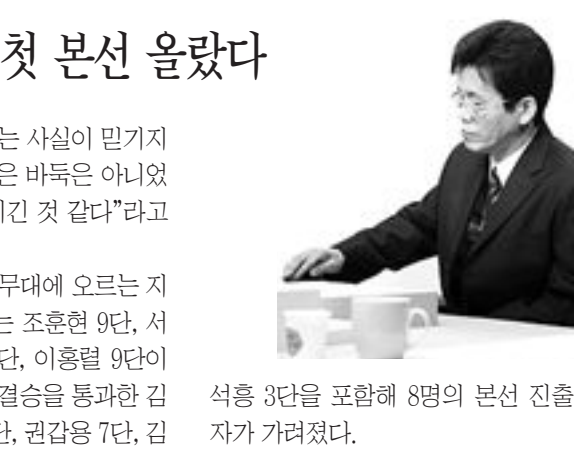
이 컸다. 권 5단은 중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아버지의 도장 운영을 도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국에 오니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권효진 5단은 서초구 반포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0월에는 첫 아이의 엄마가 될 꿈에도 부풀어 있다. 위예 4단은 국제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어 국내 바둑팬들에게 다소 낯설지만 중국에서는 힘 있는 기풍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산시성 태생으로 1997년에 입단한 위예는 그동안 중국 갑조리그 펄메이팀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日 NEC배, 장쉬 9단 품으로

특히 자신에게 명인, 본인방을 모두 빼앗아 갔던 다카오신지 9단을 상대로 타이틀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달라 수확이 없다. 현재 장쉬 9단은 NEC배를 비롯해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랭킹 7위인 기성(善星)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우승을 차지한 장쉬 9단은 중국의 NEC배 우승자인 치우젠 7단과 중일 NEC배 대항전을 갖는다. 일본 NEC배 주최하는 NEC배는 우승상금이 1500만엔, 준우승상금은 750만엔으로 우승자는 중일 NEC배 대항전에 출전한다. 36살이었던 1994년 입단한 김 3단

‘늦깎이’ 김석홍 3단, 생애 첫 본선 올랐다

지지옥선배, 장주주 9단 놀러 늦깎이로 입단한 '입단 13년차' 김석홍 3단이 생애 첫 본선 무대에 올랐다. 김 3단은 최근 열린 제1회 지지옥선배 시니어부 예선 결승에서 장주주 9단을 286수 만에 흑 6집 반으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36살이었던 1994년 입단한 김 3단



석홍 3단을 포함해 8명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다.

이현욱·최규병 16강에

왕중왕전, 이관철·루이 꺾어 이현욱과 최규병이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서 상큼한 스타트를 끊었다. 이현욱 6단과 최규병 9단은 지난 13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32강에서 각각 이관철 3단과 루이나이웨이 9단을 꺾고 16강전에 진출했다. 이 6단은 283수 끝에 백 10집 반으로 이관철 3단을 제압했고 최규병 9단은 루이 9단을 265수 끝에 흑 불계로 따돌렸다. 바둑TV 등이 주최하는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준우승 1천 800만원)이다. 제한시간 10분, 초읽기 40초 3회.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최대한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개정판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미기득점 부문

호성공인중개사
대지매매 (교회, 원·투룸부지)
·광산구 하남공단내 2차선x2차선 코너 대지 1천평 7백평 등
·북구 일곡동 자연농지 2.400평

토우드공인중개사
토지
·산하동 800평 당 도로형 평당 1만원
·전곡동 3000평 하남지구 4평부지 도로형 부지매매 2만2천(당)

다우공인중개사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남양 현대자동차 출고장 건너편 오봉리수지(뉴시티) 바로 옆 210~360평 총8필지중 4필지 매각

법원경매
지지경매컨설팅(주)
(광주법원 입찰법정 건너편)
☎ 062-226-0047
현장조사, 권리분석, 수익분석, 입찰신청, 대출안 내, 명도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확실한 채테크